

학교적응의 예측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or Variables of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이지연(Lee, Ji Yeon)¹⁾

정익중(Chung, Ick Joong)²⁾

백종림(Back, Jong Leem)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most critical variabl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In addition, this research assessed the impact of variables according to the categorization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domains. To acquire the effect sizes, published studies between 1990 and 2012 were reviewed systematically and synthesized by meta-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34 variables which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school adjustment of youth and confirmed that 24 of those variables are significant. The most crucial variable that can influence school adjustment is that of a teacher's support. The next most important variables are self-resilienc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elf-efficiency. Focusing on the categorized elements, self-resilience is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the individual domain, the parent-child relation is the most crucial variable in the family domain, and a teacher's support is the most powerful variable in the school domai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number of the indispensable components in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youth's adjustment in school.

Keywords : 학교(school),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메타분석(meta-analysis), 효과크기(effect size).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59).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²⁾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Corresponding Author : Chung, Ick Jo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Republic of Korea
E-mail : ichung@ewha.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이 관계들을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는 학교이다.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자신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경험하며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교사나 또래 등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학교의 규범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자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Kim, 2009). 또한 학교는 인지적 발달 강화와 사회·정서적 기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아동·청소년을 육성해 내는 곳이다(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인관계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한 생활공간이 되며 학교적응 그 자체가 발달과업들 중 하나에 포함된다(Rutter, 1985).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학교 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 약물중독, 비행, 가출, 자살, 무단결석 등 청소년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2008)에서 추정된 학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학생군의 수는 1,295,025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학생의 17%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들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다(Yu, 2011). 또한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78.3%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84.2%는 부모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동·청소년기의 대인관계는 주로 가족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작용을 한다(Chung & Lee, 2012).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족과 학교 요인으로 구분하여 탐색한 선행연구(Barnett, 2008; Finkelstein, Kubzansky, Capitman, & Goodman, 2007)를 고려해 볼 때, 자녀에게 낙천적인 관심과 개방된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둔 청소년들은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방임된 청소년은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받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학업성취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되었다(Lee & Larson, 2000; Park & Chung, 2010).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은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고(Kim, 2011) 시험 성적만으로 자녀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녀를 지나치게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자살, 가출, 그리고 학교 부적응 등의 병리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내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그 관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2). 이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한국 학교 문화의 특성을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 요인 등의 전체 체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학교적응은 아동·청소년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Kim, 2012). 따라서 가족과 학교의 환경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그에 따르는 학교적응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Bennett & Gibbons, 2010).

최근까지 진행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인요인(Bae, 2011; Ha, 2011; Kim, 2009; Kim & Kim, 2012; Lee & Lee, 2008; Lee & Lee, 2011; Lim, 2010), 가족요인(Ahn, 2010; Kim et al., 2006; Kim et al., 2011; Kim & Lee, 2011; Lee & Kim, 2012; Seo et al., 2012), 학교요인(Baek & Baek, 2002; Choi, 2009; Ki, 2012; Kim, 2004; Lee et al., 2008; Park & Kim, 2012; Yoo et al., 2009)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적응의 원인을 개인요인에서 탐색한 선행연구들(Ha, 2011; Kim & Kim, 2012)은 아동·청소년이 자기효능감이 높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며 자아성취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eo 등(2012)은 가족요인에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분석하였는데, 가정의 불화나 부모의 방임인 가정환경이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요인에서는 또래 또는 교사와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Choi, 2009). 이러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면

서도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양적으로도 비교적 많은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명쾌하고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동일한 변인이라 할지라도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실시된 단일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통합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압축된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된다(Yu, 2011). 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연구가 실시되는 데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으며(Jin & Bae, 2012)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의 통합을 통해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필요한 절대적이고 우선순위가 높은 변인을 선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학교적응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학교적응의 주요 영향변인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준화시키고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학교적응 관련변인 중 가장 효과크기가 큰 변인은 무엇이며 개인, 가족, 학교 영역 별 관련 변인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어떠한 변인들이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연구들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논문들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상관계수의 평균효과크기를 구함으로써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비교·분석하였다.

1. 자료의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메타분석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의 검색은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서비스(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E.article, 뉴논문 등의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총 433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 중 논문의 제목이 애매모호한 경우 초록을 확인하여 분석 대상 여부를 결정하였고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적거나 상관관계에 관한 설명이 없는 논문, 기술통계 분석에 불과한 연구와 같은 메타분석이 요구하는 자료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논문, 그리고 동일한 2차 자료를 사용한 논문 및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통합한 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학교적응의 조작적 정의와 논문에 사용된 척도를 비교·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연구의 결과를 연구대상으로서 검토하였고 본 연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 총 101개를 선별하였다.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크기 계산에 필요한 통계정보가 불완전한 논문과 효과크기 분석사례수가 3개 이상 되지 않는 논문 19편을 제외하였고 2차로 82편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3편의 논문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총 79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을 1인이 할 경우의 오류와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간에 연구물에 대해 최소한 두 번 이상의 확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높였다.

2. 자료의 코딩

본 연구의 대상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코딩표를 만들고 각각의 논문을 논의한 다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조사지 형식을 갖춘 코딩표의 코딩항목으로 ID,

연구년도, 연구대상, 연구제목, 연구자명, 조사 지역, 학회지명, 사례수, 독립변수, 해당변인의 효과(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t값, F값)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평균효과크기와 Q검증 결과를 산출하였다(Wilson et al., 2003).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들의 효과크기를 바탕으로 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먼저 각 논문들로부터 얻은 통계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메타분석에서 기준 통계치로 사용하는 계수인 상관계수 r 을 추출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중평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Fisher가 제시한 표준화된 상관계수(Zr)로 변환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연구간 평균상관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연구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의 통합방법으로서의 메타분석 방법 역시 논리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통계분석방법의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Jin & Bae, 2012). 즉,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전체 연구논문들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먼저 실시하게 된다. 동질성 검증은 모든 효과크기들이 동일한 모집단 평균값을 추정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것(Yu, 2011)으로서 동질성 검증을 통해 포함된 각 연구가 동질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랜덤효과 모형을 적용한다(Oh, 2002).

동질성 검증결과, 효과크기 및 상관계수의 크기가 이질적인 분포를 보일 경우 가정에 따라 랜덤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그리고 혼합모형으로 구분된다. 랜덤효과모형은 각각의 연구

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연구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게 되며, 고정효과모형은 코딩과 관련한 연구논문들의 특성과 조절변수 등 분산의 출처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갖는다. 또한 혼합모형은 분산이 일부는 체계적이고 일부는 랜덤효과일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 검증을 통해 연구에 포함된 연구들이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추출된 표본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랜덤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총 7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메타분석한 결과 34개 변인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선정된 논문들과 변인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분석대상 논문으로는 학위논문 13편, 학술지 논문 66편이 선정되었으며, 발행연도는 1990-1999년 3편, 2000-2008년 35편, 2009-2012년 41편이 선정되었다. 연구대상별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4편, 중학생 18편, 고등학생 15편, 초·고등학생 1편, 중·고등학생 9편, 초·중·고등학생이 2편이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녀를 함께 조사한 논문이 78편이며, 남 0편, 여 1편이었다. 조사지역은 대도시 39편, 중소도시 27편, 농어촌 7편, 혼합 6편이었으며, 사례 수는 100명 미만 1편, 100이상-500미만 42편, 500이상-1000미만 25편, 1000이상 11편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은 총 34개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분석범위는 최소한 연구 사례수가 3개 이상인 것으로 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nalyzed papers about school adjustment

Division	Content	Frequency	%
Research paper source	Master's thesis	13	16.46
	Journal article	66	83.54
Study year	1990-1999	3	3.80
	2000-2008	35	44.30
	2009-2012	41	51.90
Age	Elementary school students	34	43.04
	Middle school students	18	22.78
	High school students	15	18.99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1	1.2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9	11.39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2	2.53
Gender	Boys and girls	78	98.73
	Boys	0	0.00
	Girls	1	1.27
Area	Big city	39	49.37
	Small and medium-sized city	27	34.1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7	8.86
	Mix	6	7.59
Number of cases	-100	1	1.27
	100-500	42	53.16
	500-1000	25	31.65
	1000-	11	13.92
Predictor variable	Gender	18	8.96
	Grade	8	3.98
	Self-esteem	18	8.96
	Depression	8	3.98
	Aggression	4	1.99
	Self Resilience	13	6.47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3	1.49
	Self-efficacy	5	2.49
	Self-control capacity	5	2.49
	Stress level	4	1.99
	Internet addict	5	2.49
	Family financial status	6	2.99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5	2.49
	Parent empathy	3	1.49

〈Table 1〉 Continued

Division	Content	Frequency	%
	Family size	5	2.49
	Parenting attitude	3	1.49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4	1.99
	Family strength	7	3.48
	Parent attachment	5	2.49
	Family support	3	1.49
	Family functioning	3	1.49
	Parental monitoring	4	1.99
	Marital conflict	3	1.49
	Parental authority	3	1.49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s	6	2.99
	Academic achievement	4	1.99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9	4.48
	Peer support	5	2.49
	Good friendship	12	5.97
	Peer attachment	3	1.49
	Teacher support	6	2.99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4	1.99
	Teacher attachment	3	1.49
	Academic stress	4	1.99
Total		79	100.0

그 결과 성별(18개), 학년(8개), 자아존중감(18개), 우울(8개), 공격성(4개), 자아탄력성(13개), 외모만족도(3개), 자아효능감(5개), 자아통제력(5개), 스트레스수준(4개), 인터넷중독(5개), 가족경제수준(6개), 친밀한 부모자녀관계(5개), 부모공감(3개), 가족형태(5개), 부모양육태도(3개), 가족폭력경험(4개), 가족건강성(7개), 부모애착(5개), 가족지지(3개), 가족기능(3개), 부모감독(4개), 부부갈등(3개), 부모권위(3개), 부모-자녀 의사소통(6개), 학업성취(4개), 학교폭력피해경험(9개), 친구지지(5개), 좋은 친구관계(12개), 친구애착(3개), 교사지지(6개), 교사-학생의 친

밀한 관계(4개), 교사에착(3개), 학업스트레스(4개) 등이 추출되었다.

2. 주요 변인의 메타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메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논문에서 선별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은 개인, 가족, 학교의 3개 변인군으로 유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인 변인군으로 범주화 시킨 변인들로는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외모

〈Table 2〉 The result of a meta-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predictors

Domain	Predictor variable	N	Sample size	Zr	Weighted Standard Deviation	Variance	95% CI		Q P
							Lower	Upper	
Individual	Gender	18	11,126	0.104*	0.043	0.002	0.020, 0.189	314.935*	
	Grade	8	5,051	0.059	0.048	0.002	-0.035, 0.153	69.767*	
	Self-esteem	18	11,179	0.444*	0.053	0.003	0.340, 0.548	487.923*	
	Depression	8	6,702	-0.266*	0.020	0.000	-0.305, -0.227	14.932*	
	Aggression	4	7,183	-0.206*	0.040	0.002	-0.284, -0.129	27.084*	
	Self-resilience	13	5,581	0.565*	0.111	0.012	0.348, 0.782	808.051*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3	1,663	0.458*	0.025	0.001	0.409, 0.506	2.005	
	Self-efficacy	5	5,090	0.516*	0.117	0.014	0.287, 0.744	199.350*	
	Self-control capacity	5	1,884	0.371*	0.115	0.013	0.145, 0.596	97.841*	
	The level of stress	4	1,485	-0.289*	0.047	0.002	-0.382, -0.196	8.756*	
	Internet addiction	5	3,963	0.004	0.139	0.019	-0.269, 0.276	223.336*	
Family	Family financial status	6	2,141	0.264	0.176	0.031	-0.081, 0.608	314.720*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5	2,834	0.446*	0.124	0.015	0.204, 0.689	162.860*	
	Parent empathy	3	6,418	0.392*	0.033	0.001	0.3280, 0.456	10.625*	
	Family size	5	2,137	0.011	0.062	0.004	-0.110, 0.133	29.785*	
	Parenting attitude	3	2,040	0.44	0.257	0.066	-0.064, 0.944	205.484*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4	1,429	-0.258*	0.032	0.001	-0.320, -0.196	0.424	
	Family strength	7	5,452	0.345*	0.072	0.005	0.204, 0.487	120.892*	
	Parent attachment	5	7,646	0.02	0.138	0.019	-0.252, 0.291	470.125*	
	Family support	3	1,628	0.410*	0.025	0.001	0.362, 0.459	0.503	
	Family functioning	3	1,422	0.043	0.164	0.027	-0.278, 0.365	63.558*	
	Marital conflict	4	3,859	0.428*	0.065	0.004	0.300, 0.556	40.313*	
	Parental monitoring	3	1,681	-0.207*	0.085	0.007	-0.373, -0.041	23.975*	
	Parental authority	3	2,430	0.217*	0.065	0.004	0.090, 0.344	15.607*	
	Parent-child communications	6	2,060	0.371*	0.08	0.006	0.213, 0.528	64.444*	
School	Academic achievement	4	4,104	0.124	0.083	0.007	-0.039, 0.287	42.567*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9	4,520	-0.089	0.096	0.009	-0.277, 0.100	345.544*	
	Peer support	5	2,256	0.452*	0.188	0.035	0.084, 0.821	300.924*	
	Good friendship	12	8,230	0.546*	0.104	0.011	0.343, 0.749	854.503*	
	Peer attachment	3	6,833	0.366*	0.123	0.015	0.124, 0.608	177.944*	
	Teacher support	6	2,394	0.797*	0.156	0.024	0.491, 1.102	283.401*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4	1,955	0.511*	0.051	0.003	0.410, 0.611	14.946*	
	Teacher attachment	3	6,833	0.314*	0.131	0.017	0.057, 0.572	201.848*	
	Academic stress	4	1,808	0.32	0.272	0.074	-0.214, 0.854	361.323*	
Total of individual variable		60	60,907	0.221*	0.047	0.002	0.130, 0.312	4687.909*	
Total of family variable		31	43,177	0.313*	0.042	0.002	0.232, 0.394	1206.041*	
Total of school variable		22	38,933	0.527*	0.071	0.005	0.388, 0.666	1783.732*	

* $p < .05$.

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 중독 등이 있다. 가족 변인군으로는 가족경제수준, 친밀한 부모 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형태, 부모양육태도, 가족폭력 경험, 가족건강성, 부모애착, 가족지지, 가족 기능, 부모감독, 부부갈등,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군은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지지, 또래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관계, 교사에착, 학업스트레스가 추출되었다.

아동·청소년 학교적응 관련 변인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친구지지, 좋은 친구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 교사에착,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건강성, 가족지지, 부모감독,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우울, 공격성, 스트레스 수준, 가족폭력 경험, 부부갈등 변인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폭력 경험이 많고 부부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ohen(1988)은 통계적 검정력을 통해 행동과학 분야에 있어 표준화된 상관관계수의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작은 효과크기는 .10보다 작은 값을, 중간 효과크기는 .25와 근접한 값, 큰 효과크기는 .40보다 같거나 큰 값으로 정의하였다. 메타분석에 의해 산출된 본 연구의 평균상관계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교사지지($r = 0.797$), 자아탄력성($r = 0.565$), 좋은 친구관계($r = 0.546$), 자아효능감($r = 0.516$), 교사-학

생의 친밀한 관계($r = 0.511$), 외모만족($r = 0.458$), 친구지지($r = 0.452$), 친밀한 부모자녀관계($r = 0.446$), 자아존중감($r = 0.444$), 부모감독($r = 0.428$), 가족지지($r = 0.410$)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부모공감($r = 0.392$), 자아통제력($r = 0.37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0.371$), 친구애착($r = 0.366$), 가족건강성($r = 0.345$), 교사에착($r = 0.314$), 스트레스수준($r = -0.289$), 우울($r = -0.266$), 가족폭력경험($r = -0.258$), 부모권위($r = 0.217$), 부부갈등($r = -0.207$), 공격성($r = -0.206$) 순으로 나타났다. 작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성별($r = 0.104$)이 추출되었다.

각 관련변인들의 평균상관계수(Fisher Z)의 유의도를 살펴볼 때, 학년, 인터넷 중독, 가족경제수준, 가족 형태,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가족 기능,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업스트레스 변인들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아동·청소년 학교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Q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상관계수가 유의미한 변수들 중 외모만족도와 가족지지, 그리고 가족폭력 경험을 제외한 변인들에서 연구 내 상관관계수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는 효과크기들의 분포가 이질적이라는 의미와도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요인, 가족요인, 그리고 학교요인별 전체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개인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0.221로 가장 낮았으며 가족요인의 전체 효과크기는 0.313으로 개인요인의 효과크기보다 0.092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전체 효과크기를 보인 요인은 학교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0.527로 개인요인의 전체효과크기보다 0.3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anking of all predictor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Rank	Predictor Variable	Effect Size	Rank	Predictor Variable	Effect Size
1	Teacher support	0.797*	13	Self-control capacity	0.371*
2	Self resilience	0.565*	14	Parent-child communication	0.371*
3	Good friendship	0.546*	15	Peer attachment	0.366*
4	Self-efficacy	0.516*	16	Family strength	0.345*
5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0.511*	17	Teacher attachment	0.314*
6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458*	18	The level of stress	-0.289*
7	Peer support	0.452*	19	Depression	-0.266*
8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0.446*	20	The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0.258*
9	Self-esteem	0.444*	21	Parental authority	0.217*
10	Parental monitoring	0.428*	22	Marital conflict	-0.207*
11	Family support	0.410*	23	Aggression	-0.206*
12	Parent empathy	0.392*	24	Gender	0.104*

〈Table 4〉 The ranking of categorized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Individual Variable			Family Variable			School Variable		
Rank	Variable	Effect Size	Rank	Variable	Effect Size	Rank	Variable	Effect Size
1	Self-resilience	0.565*	1	Parent-child intimate relationship	0.446*	1	Teacher support	0.797*
2	Self-efficacy	0.516*	2	Parental monitoring	0.428*	2	Good friendship	0.546*
3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458*	3	Family support	0.410*	3	Teacher-student intimate relationship	0.511*
4	Self-esteem	0.444*	4	Parent empathy	0.392*	4	Peer support	0.452*
5	Self-control capacity	0.371*	5	Parent-child communication	0.371*	5	Peer attachment	0.366*

3. 전체 주요 변인 별, 영역 내 주요 변인 별 효과크기 비교

학교적응 관련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24개의 평균 상관계수(Z_r)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가장 큰 평균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학교요인 관련변인인 교사지지였다. 평균 효과크기는 0.797로 가장 낮은 평균 효과크기를 보인 성별의 0.104와 0.693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 좋은 친구관계, 자아 효능감, 교사-학생관계, 외모만족도, 친구지지,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자아존중감, 부모감독, 가

족지지, 부모공감 순으로 평균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족, 학교로 유형화시킨 영역별 평균상관계수(Zr)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개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외모만족도 순으로 평균효과크기의 순위가 나타났다으며, 가족요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감독, 가족지지 순으로 평균효과크기의 순서가 정해졌고,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지지, 또래관계, 교사-학생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에서의 자아통제력과 가족요인에서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효과크기의 값(0.371)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요인에서의 부부갈등(-0.207)과 개인요인에서의 공격성(-0.206)은 평균효과크기의 차이가 0.001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의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변인(0.446)과 개인요인의 자아존중감 변인(0.444) 역시 평균효과크기의 차이가 0.002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가장 낮은 평균효과크기를 보인 변인들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에서는 성별, 가족요인에서는 부부갈등, 그리고 학교요인에서는 교사에착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발표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체계화하고 효과크기의 결과를 통합하기 위해 1991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은 성별, 학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수준, 인터넷중독, 가족경제수준,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형태, 부모양육태도, 가족폭력경험, 가족건강성, 부모애착, 가족지지, 가족기능, 부모감독, 부부갈등,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업성취, 학교폭력 피해경험, 친구지지, 좋은 친구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 교사에착, 학업스트레스 등 총 34개가 선별되었다. 이 중에서 평균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변인은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요인에서는 성별,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자아효능감, 자아통제력, 스트레스 수준 등 9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가족요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공감, 가족폭력 경험, 가족건강성, 가족지지, 부모감독, 부부갈등, 부모권위,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요인으로는 친구지지, 좋은 친구관계, 친구애착, 교사지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 교사에착이 선별되었다.

둘째, 메타분석에 의해 산출된 평균상관계수의 결과를 Cohen이 제시한 효과크기의 해석에 근거해 살펴보면,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교사지지($r = .797$), 자아탄력성($r = 0.565$), 좋은 친구관계($r = 0.546$), 자아효능감($r = 0.516$),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r = 0.511$), 외모만족($r = 0.458$), 친구지지($r = 0.452$), 친밀한 부모자녀관계($r = 0.446$), 자아존중감($r = 0.444$), 부모감독($r = 0.428$), 가족지지($r = 0.410$)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이는 변인으로는 부모공감($r = 0.392$), 자아통제력($r = 0.371$), 부모-자녀 의사소통($r = 0.371$), 친구애착($r = 0.366$), 가족건강성($r = 0.345$), 교사에착($r = 0.314$), 스

트레스수준($r = -0.289$), 우울($r = -0.266$), 가족 폭력경험($r = -0.258$), 부모권위($r = 0.217$), 부부 갈등($r = -0.207$), 공격성($r = -0.206$) 순으로 나타났다. 작은 효과크기를 보이는 변인으로는 성별($r = 0.104$)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의 효과크기 및 영역 별 주요 변인의 효과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지지($r = 0.797$)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는 자아탄력성, 좋은 친구관계였다.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낮은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성별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변인의 순위를 개인, 가족, 학교 세 가지 영역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아효능감,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에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 부모감독, 가족지지 순으로 순위가 나타났으며, 학교요인에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고 좋은 친구관계와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영역 별 전체효과크기를 비교해 보면, 학교요인이 가장 큰 효과크기(0.527)로 나타났고 가장 작은 효과크기를 보인 개인요인(0.047)의 효과크기보다 0.480이나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내 부적응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추출한 후 이 변인들을 메타분석하여 효과크기를 표준화하였다. 통합된 각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하여 단일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적응 향상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단일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 가족, 그리고 학교라는 다차원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일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다중요인(multi-component)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집단의 경우 대부분 개인, 가족, 그리고 학교차원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개입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요인 프로그램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Lee, Do, Chung, Kim, & Byun, 2005).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부모의 역할과 학교 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유전적인 특성을 자녀와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및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Choi, 2004).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교육 지침서를 활용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사 1인당 학급인원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교사가 부적응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Lee, 2008). 더불어 학생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따뜻한 품성을 지닌 교사의 자질이 요구되고, 이러한 자질을 함양한 교사를 양성해 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

양한 학생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지도를 하려면 교사도 상담관련 분야의 교과목(예: 사회복지실천,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등)을 필수로 이수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임용시험과목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요인별 효과크기를 비교하고 개인, 가족, 학교로 유형화시킨 영역별 평균 상관계수(Zr)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개입 방안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개인 영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의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의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다(Moon,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큰 반면, 자아탄력성이 낮은 아동·청소년은 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게 좌절하고 적응 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Block & Gjerde, 1993). 가족 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Cho, 2010) 있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시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해주고, 늘 격려해 주고,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향상될 것이다. 동시에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정규 학교상담 수업시간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개인요인의 변인 중에서 주목할 점이라면 외모만족도가 학교적응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외모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는데(Chung, 2007) 이번 연구 결과에서 외모만족도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자아존중감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를 자신감의 근원이나 사회적 경쟁력과 동일시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전반적인 풍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Chung & Lee, 2011).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루키즘이 가지고 있는 타인 지향적 특성은 본질보다는 표면적인 조건을 더 중시함으로써 감각적인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증가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건강한 신체보다는 날씬한 신체만을 원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Chung & Lee, 2011).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인격이나 지식 그리고 능력의 총체적 집합체인 사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고 피부색 또는 체형 등 타인의 외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차이나 개성에 대한 존중 없이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교우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듯이 학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리사회적 발달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Chung & Lee, 2011).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모와 관계없이 사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 자신과 타인

의 개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풍토와 나와 다른 문화의 상대적 차이를 이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가족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선별되었다. 부모자녀관계가 초기 아동기의 성격과 도덕성 발달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한 것은 Freud (1961)와 Kohlberg(1981)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었다. 선행연구(Cho, 2004; Kim, 2005) 또한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학교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비행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국내 선행연구(Koh, 2009)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 유형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친밀감과 자녀가 부모에게 나타내는 존경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격형성 그리고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요인이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따라서 학교는 가족단위의 집단상담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요인별 전체효과크기에서 학교요인인 교사지, 좋은 친구관계, 교사-학생의 친밀한 관계가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학교적응과 관련한 변인 중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아동·청소년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좋은 친구관계보다 교사지지가 더 큰 영향력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Jung, 2004)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업성취를 학교적응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변수로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사지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요인에서 두 번째 순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인 좋은 친구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더욱 갖게 되는데, 그 중 친한 또래와의 관계는 정서적인 지지자로 학교적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행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는 낮은 학교적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비행또래와의 접촉을 억제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데 중요하며, 가족과 학교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Kim, 2008). 친구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바람직한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있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며,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Kim, 2000).

이제까지의 많은 선행연구(Crystal, Chen, Fuligni, & Stevenson, 1994; Lee & Lee, 2009; Moon & Kim, 2002; Shin, 2001)들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업 동기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성취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학업성취와 같은 유능감 욕구 보다는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 친구와의 우정과 같은 또래관계, 애정과 친밀감으로 형성되는 부모

자녀관계 등과 같은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긍정적으로 발휘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업성취 측면에서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는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Bek(2012)은 학교적응에 대한 기본 심리욕구의 영향을 확인하면서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유능감 욕구보다는 관계성 욕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이 주로 관계를 갖는 교사와 또래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고 부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개입을 위한 실천 방안에 있어 본 연구가 제시한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입한다면,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후연구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34개의 변인을 선별하였으나, 연구 사례수가 3개 미만인 일부 변인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통합적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들도 연구수가 축적되었을 때 포함시켜 재탐색해 본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우선순위를 단순히 확인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이론적 수준에서의 선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메타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포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hn, G. (2010).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to school adaptation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2(1), 99-108.
- *An, E. M., Kim, S. H., Jeun, S. Y., Jin, S. M., & Chung, I. J. (2012). The effect of fandom activity participation on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28(2), 421-446.
- *Bae, E. K. (2011). The effect of empathic ability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3(1), 85-100.
- Back, W. H., & Baek, D. J. (2002).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internet-addiction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2(1), 155-172.
- Barnett, M. A. (2008). Economic disadvantage in complex family systems: Expansion of family stress model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3), 145-161.
- Bek, H. S. (2012). Basic psychology needs, an academic achievement goal-orientation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f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Bennett, D. S., & Gibbons, T. A. (2000). Efficacy of child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for antisocial behavior: A meta-analysi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2(1), 1-15.
- Block, J., & Gjerde, P. F. (1993). Depressive

-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Rolf, J., Matson, A. S., Cicchetti, D., Nuechterlein, K. H., & Weintraub, S.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T., &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Hoboken: Wiley.
- Bronfenbrenner, U., & Mahoney, M. (1975). The structure and verification of hypotheses. Bronfenbrenner, U., & Mahoney, M. (Eds.), *Influences on human development*. Hinsdale: Dryden Press.
- *Byeon, Y. S., & Lee, H. S. (2007). The relation between self differentiation and school adjustment among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8(4), 673-680.
- *Chang, C. J., & Yang, H. W. (200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parents-child relationship, children's depress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2), 5-29.
- *Chang, S. J., Song, S. W., & Cho, M. N. (2011). The effects of mobile phone dependenc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to peer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431-451.
- *Cho, M. H., Choi, S. M., & Um, T. Y.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friends, teachers on career maturity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5, 81-97.
- *Cho, S. H. (2012).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primary school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 S. J. (2004).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Cho, S. J. (2010). Relationships among parents' 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 *Choi, J. E., & Shin, Y. J. (2003).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2), 199-210.
- *Choi, J. G. (2009). A study on effects of internet game addiction upon the youth's adaptation to schools and sociality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J. H. (2004). A study on the maternal attitude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O. H., & Kim, Y. M. (2008). A study on

- relation between first-grade children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2), 275-285.
- Chung, I. J.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self-esteem and their predi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18(3), 127-166.
- Chung, I. J., & Lee, J. Y. (2011). The impact of obesity an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on self-esteem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Mental Health & Social Work*, 38, 60~80.
- Chung, I. J., & Lee, J. Y. (2012). The pathways from child abuse and school bullying to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With a special focus on differences in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23(2), 217-242.
- Crystal, D. S., Chen, C., Fuligni, A. J., & Stevenson, H. W. (1994).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of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Child Development*, 65(3), 738-753.
- *Do, K. H. (2008).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ea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on body image.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3), 111-125.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lse-Quest, N. M., Hyde, J. S., Goldsmith, H. H., & Van Hulle, C. A. (2006). Gender differences in tempera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1), 33-72.
- Finkelstein, D. M., Kubzansky, L. D., & Capitman, J., & Goodman, E. (2007).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adolescent stress: The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0(2), 127-134.
- Freud, S. (1961). *The infantile genital organization: An interpolation into the theory of sexuality*. London: Hogarth Press.
- *Gu, J. A. (1997).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s and school adjustments of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15, 199-223.
- *Ha, J. H.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Jang, M. Y. (2011). The effect of children's daily stress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Korea.
- *Jang, Y. A., & Park, J. H. (2008).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Jang, Y. J., & Shin, Y. L. (2010).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elf-perceptions and reer-beliefs on the relation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10), 25-35.
- *Jeong, B. H., Kim, H. K., & Lee, Y. S. (2009). The influence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general high school

- students: Focused on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8(1), 291-312.
- *Jeung, M. S. (2010).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and both parents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26, 191-228.
- Jin, H. M., & Bae, S. W. (2012).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93-221.
- *Jo, E. J. (2008). The mediation effects of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299-322.
- Jung, K. S. (2004). Impact of social relations on yout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235-252.
- *Khu, B. Y. (2012). The mediation effects of relationship with parent, teacher, and peer between self-efficacy and adjustment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3), 347-373.
- Ki, S. J. (2012).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7(5), 127-136.
- Kim, H. J. (2008). Effect factors of adolescences’ suicide ris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7, 69-93.
- *Kim, H. J. (2011). Identifying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adjustment: A comparative study of poor and non-poor childre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 1-22.
- *Kim, H. S. (2005). The effect of their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on the level of domestic violence perceived by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1), 109-132.
- *Kim, H. S., Yi, J. T., & Hong, S. H. (2006). The effects of their school related adjustments and mental health on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24, 79-97.
- *Kim, H. W. (2011).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n relationships among peer rejection, peer victimization, psychological health, schoo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173-198.
- *Kim, J. B. (2009).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6(2), 25-48.
- *Kim, J. G., & Lee, K. H.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mbinational pattern of parenting styl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3), 1183-1200.
- *Kim, J. H. (2008). The effects of stress on adaptation to school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161-183.
- *Kim, J. O. (2009). Relationship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lly-victim experienc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Korea.
- Kim, J. Y. (2008). Reconsidering juvenile delin-

- quency and peer relationship. *Journal of Private Guard*, 11, 181-208.
- *Kim, J. W., & Gong, Y. J.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tress in early elementary years,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life. *Journal of Family and Counseling*, 2(1), 59-76.
- Kim, J. Y. (2000). Friendship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school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12).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Focusing on special and inclusive classroom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Jang, Y. E., & Min, J. A.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209-234.
- *Kim, M. H., Ha, J. H., & Cha, K. H.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motivation, multiple intelligence, learn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4(3), 57-79.
- *Kim, M. J. (2009). Impact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eeling control ability on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M. S. (2009). The study of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depression on the school adjustment of Kore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therapy*, 1(2), 53-67.
- *Kim, M. S. (2011).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in tran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Kim, S. A. (2011).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 peer relationships and self-determin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Kim, S. B. (2005). Elementary school children'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Naju, Korea.
- Kim, S. J. (2011).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students' self-esteem and test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J., & Kim, H. S. (2011).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0(2), 203-221.
- Kim, S. S. (2004). The analysis of the internet addiction and the school adapt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1(1), 19-37.
- *Kim, T. H., & Kim, S. W. (2012). The influences of mental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in middle school girls' school adapt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2(1), 67-87.

- *Kim, T. K., Yu, H. K., & Cho, Y. S. (2010).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 perception degree about parents' and teachers' authority and the students' adjustment in high school.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58(3), 61-85.
- *Kim, W. D.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aring-attitude perceived by high-school students, self-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Kim, Y. G., Lee, S. J., & Shin, H. S. (2008).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s, adjustments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Journal of Human Ecology*, 18, 116-125.
- Kim, Y. L., & Lee, K. H. (2011).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4), 125-143.
- *Kim, Y. S., & Hyun, H. S. (1999). Relationship of adolescent ego-identity and adaptability to family and school lif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0(1), 249-262.
- *Koh, E. M. (2010).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coping strategies on high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oh, S. H. (2009). The relations between Korea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Korea.
- Kohlberg, L. (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San Francisco: Harper & Row.
- *Kwak, S. R. (2006).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1), 1-26.
- *Kweon, S. Y., & Yang, Y. S. (2007). Influences of psychological emotional state, learning motive and family fun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3), 115-129.
- *Lee, B. H. (2011). The mediation effect of teacher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5), 1779-1791.
- *Lee, H. R., & Cheon, M. S. (2003). Relationship analyses between adolescents' ego-ident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4), 511-541.
- Lee, H. S. (2008).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to self-esteem among children from needy families. *The Social Welfare Student Research*, 1, 104-161.
- *Lee, I. S., & Lee, K. R. (2008). The relationship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maladjust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1(1), 11-22.
- *Lee, J. H. (2011). The effect of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Lee, J. M., & Kim, H. J. (2011). Effects of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the

- adolescents child.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4), 97-120.
- *Lee, J. Y., & Kim, B. M. (2012). Mediating effects of self obj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empathy perceived by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2), 245-263.
- *Lee, J. Y., & Lee, K. A. (2004).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61-276.
- *Lee, K. A., Lee, J. Y., & Yang, H. J. (2005). The effects of bullying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peer relational skills,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6(2), 531-543.
- *Lee, K. M., & Kim, M. S. (2008). A validation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5(1), 27-40.
- *Lee, K. N. (2008). The ec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5), 211-224.
- *Lee, K. Y., Choi, S. Y., Shin, S. C., & Jang, S. H. (2008).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peer relationship, their school adjustment, and peer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5(4), 111-133.
-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1.
- Lee, M. S., & Lee, G. M. (2009). A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behavior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1), 167-193.
- *Lee, S. H., & Choi, H. R. (2007).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21-337.
- Lee, S. H., Do, M. H., Chung, I. J., Kim, M. J., & Byun, M. H. (2005). *Youth welfare*. Seoul: Nanam.
- *Lee, S. L., & Lee, S. J.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Educational Research*, 30(1), 85-113.
- *Lee, T. J., & Kwon, J. H. (2007). A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bused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2), 377-389.
- *Lee, Y. J. (2004).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s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2), 435-449.
- *Lim, K. H. (2010). The effects of stress and ego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9(2), 217-233.
- *Lim, S. J., & Ahn, J. H. (2012). Effects of mother-child attachment on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The*

-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331-345.
- *Lim, Y. J., & Lee, E. 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2), 285-294.
- *Moon, E. J., & Sim, H. O. (200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2(4), 99-113.
- *Moon, E. S., & Kim, C. H. (2002).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fluenc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219-241.
- Moon, K. I. (2012). Effects of stress, self-resilience, and depression on suicide ideation among teen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Oh, S. S. (2002). *Theory and practice of meta-analysis*. Seoul: Konkuk University Press.
- *Park, E. J., & Sim, W. Y. (2005).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5(1), 285-310.
- *Park, E. M.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peers,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J. H., & Park, J. M. (2010). The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exam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1(6), 125-134.
- Park, J. Y., & Chung, I. J. (2010).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on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onal effects of individual-leve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2, 69-97
- *Park, S. H. (1995). Relationships of family, schoo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Educational Research*, 24, 203-227.
- *Park, W. S., & Kim, C. S. (2012). The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impulsivenes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lligent System*, 22(2), 232-238.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eo, S. N., Lee, S. G., & Lim, S. H. (2012).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0(8), 327-333.
- Shin, H. S. (2001). Comparisons of coping style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ifferent types of schoo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4), 297-321.
- *Shin, H. S. (2009). Mediating effect of social identity and retaliatory psycholog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University, Incheon, Korea.

- *Song, H. W., & Choi, S. Y.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3), 651-672.
- *Song, M. R., & Lee, J.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neglect and children's ego resilience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29*, 219-244.
- *Song, S. Y., & Park, S. Y. (2008). The effects of SES,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s peer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5), 19-33.
- *Song, W. Y., & Kwak, S. R. (2006). A research on protection factors influencing on teenager's school adaptation. *Family and Culture, 18*(3), 107-129.
- Wilson, S. J., Lispey, M. W., & Derzon, J. H. (2003). The effect of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aggressive behavior: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136-149.
- *Yang, S. M., & Yoo, Y. J. (2003). Effects of self-esteem, healthiness of family,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in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9), 121-134.
- *Yang, S. Y. (2006). The effect adolescent's internet game addiction reality ego-identity and cyber ego-identity on family relationship and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Yoo, B. H., Kim, S. M., Baek, H. G., & Kang, J. H. (2009).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7*(2), 71-81.
- Yu, I. S. (2011). A meta-analysis on the researches of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메타분석에 사용한 논문임.

Received October 19, 2013

Revision Received February 24, 2014

Accepted March 15, 2014